
2018년도 제8대 과천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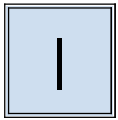
- ▶기간 : 2018. 11. 14 ~ 11. 27 (11박 14일)
- ▶방문국 : 캐나다 (몬트리올, 할디만디)



과 천 시 의 회

- 목 차 -

I. 공무국외연수 개요	1
II. 방문지 기본현황	5
1. 일반사항	5
2. 퀘벡 교육의 역사	6
3. 퀘벡 교육의 특성	11
4. 퀘벡 교육의 체계	12
III. 방문지별 주요 보고내용	16
1.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16
2. 피어슨 교육청	18
3. 피어슨 전기기술학교	21
4. ETS공업대학	25
5.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28
6.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	32
7. 몬트리올 한인성당	35
8. CDI 칼리지	37
IV. 정책제언	39
V. 참고자료	41



공무국외연수 개요

▷ 목적

▷ 당초 국외연수 목표로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기관 방문, 민·관 거버넌스 실태 조사, 글로벌 인재육성 방안 등을 상정하였음.

▷ 그러나 출국 전 김현석, 박상진 양 의원은 그동안의 국외연수가 단순히 의원의 역량강화에만 주안점을 두고, 실제 과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는 것에 깊은 고민을 하여 수차례의 논의 결과 연수 목표는 한정하되 실질적인 정책적·체감적 성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연수 목적을 변경하게 됨

▷ 최종적으로 캐나다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교육 시스템의 혁신에서 비롯된 것에 주목하여, 캐나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퀘벡주 안에서 캐나다 최상위권 대학인 맥길대학, 몬트리올대학이 소재하여 교육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는 몬트리올시의 교육정책 전반을 시찰하고 의원 외교를 통해 몬트리올시 및 산하기관과 교육관련 교류 및 협약을 체결할 것을 목표로 하여 금번 국외연수를 다녀오게 됨.

▷ 또한 단일부지 기준으로 북미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할디만디 카운티를 방문하여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폐해를 직접 확인하고 옴.

▷ 기간 : 2018년 11월 14일 ~ 11월 27일

▷ 출장자 : 김현석 시의원, 박상진 시의원

▷ 수행공무원 : 없음

▷ 보고서 작성자 : 김현석 시의원(문서작성), 박상진 시의원(자료수집)

▷ 방문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시간	주요일정
1일차 (11/14)[일]	인천	몬트리올	18:55 ~ 21:44	○ 인천공항 ⇒ 토론토공항(경유) ⇒ 몬트리올공항
2일차 (11/15)[월]	몬트리올		15:00 ~ 17:00	○ 몬트리올 총영사관 방문
3일차 (11/16)[화]	몬트리올		13:00 ~ 16:00	○ 몬트리올 피어슨 교육청 1차 방문
4일차 (11/17)[수]	몬트리올		13:00 ~ 17:00	○ 몬트리올 LBP직업학교 방문
5일차 (11/18)[목]	몬트리올		10:00 ~ 16:00	○ 몬트리올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 방문
6일차 (11/19)[금]	몬트리올		10:00 ~ 16:00	○ 몬트리올 ETS공업대학 방문
7일차 (11/20)[토]	몬트리올		12:00 ~ 14:00	○ 몬트리올 한인성당 신부·수녀님 오찬
			15:00 ~ 17:00	○ 라신 지역도서관 방문 및 이용
8일차 (11/21)[일]	몬트리올		10:00 ~ 16:00	○ 몬트리올 한인성당 방문 및 성당 한인회 면담
9일차 (11/22)[월]	몬트리올	할디만디 카운티	07:00 ~ 08:24	○ 몬트리올공항 ⇒ 해밀턴공항
			14:00 ~ 19:00	○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방문
10일차 (11/23)[화]	할디만디 카운티	몬트리올	08:55 ~ 10:07	○ 해밀턴공항 ⇒ 몬트리올공항
			16:00 ~ 19:00	○ 한인 유학생 어머니회 면담
11일차 (11/24)[수]	몬트리올		10:00 ~ 14:00	○ 몬트리올 피어슨 교육청 2차 방문 (한국 내방 예약 및 교육교류 방안 조율)
12일차 (11/25)[목]	몬트리올		13:00 ~ 17:00	○ 몬트리올 CDI 칼리지 방문
13일차 (11/26)[금]	몬트리올	벤쿠버	07:20 ~ 09:52	○ 몬트리올공항 ⇒ 벤쿠버공항(경유)
14일차 (11/27)[토]	벤쿠버	인천	12:05 ~ 16:20	○ 인천공항 도착

▷ 방문지 요약

방문지	관련사진	관련 정리 내용
1. 몬트리올 총영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수 관련 협조요청
2. 피어슨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천시-몬트리올시 교육교류 협의
3. 피어슨 전기기술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 전기기술 취업교육과장 시찰
4. ETS공업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산업 관련 공업교육 과정 시찰
5.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현장 확인
6.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공립고등학교 시찰

<p>7. 몬트리올 한인성당 관계자 미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천 청소년 현지 홈스테이 방안 등 논의
<p>8. CDI 칼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 직업 대학 방문 및 면담
<p>9. 라신 지역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몬트리올 라신지역 마을도서관 이용 및 관계자 면담
<p>10. 한인 학부모 어머니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몬트리올 유학시 주의점 등 정보 확인

II

방문지 기본현황

1. 일반사항

국명	캐나다(Canada)
수도	오타와(Ottawa)
면적	9,984,670km ² (한반도 45배)
인구	3,696만명(18.1월 기준)
언어	영어, 불어 (영어 사용자 56%, 불어 사용자 21%)
종교	카톨릭(39%), 개신교(28%), 이슬람, 힌두, 시크 등 기타(6.1%)
국체	입헌군주국(영연방)
정체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총독(질리 파예트 : 2017. 10 취임)이 여왕 권한 대행 **총리(쥐스탱 트뤼도 : 2015. 11 취임)가 정부수반
교육	의무교육(12년 : 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
연방구성	10개 주 및 3개 준주

2. 퀘벡 교육의 역사

- 캐나다 퀘벡주의 교육체계의 독특함과 단기간에 걸친 혁신적인 변혁과정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참고할 점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 캐나다 교육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두고 있으나 1960년 전 퀘벡의 교육은 가톨릭교회에 의해 약 2세기에 걸쳐 거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던 교육 체제였다.

-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사회구조가 대격변을 거쳤다. 교육시스템도 격변의 과정을 겪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간 반면, 캐나다의 경우 완만한 변화 속에 가톨릭교회가 장악한 교육계의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 그러나 1960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집권한 퀘벡 자유당은 주 정부 주도로 영국계가 장악하던 경제 부문과 가톨릭교회가 장악해오던 교육 부문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했다. 퀘벡 자유당의 집권은 단순한 정권 이동이 아닌, 퀘벡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로 퀘벡에서는 이를 조용한 혁명(Révolution tranquille)이라 부른다.

- 특히 가톨릭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나 퀘벡 사회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현대화를 이루게 된 마중물이 되었으며, 퀘벡 자유당은 프랑스어의 사용이나 프랑스계 문화 보존에 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공교육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교육의 지표를 열어가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퀘벡주 교육과정의 혁명적인 변화는 퀘벡의 프랑스계들이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아닌 퀘벡인으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의 퀘벡이 완성되게 되었다.

- 캐나다 퀘벡 교육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초기 프랑스 개척자들에 의한 퀘벡의 식민지화로부터 1763년 파리 조약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체제 하의 시기, 영국 정복으로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영국 체제에 따른 시기, 그리고 교육체계의 대개혁을 일으켰던 1960년대 이후에서 현재에 이르는 퀘벡 교육의 역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프랑스 체제 하의 교육

- 프랑스 식민지 개척자들이 캐나다에 도래한 후 얼마 안 되어 가톨릭교회가 처음으로 초등교육의 체계를 잡았다. 퀘벡 최초의 남자 중등학교가 1635년에 설립되었으며, 여자 중등학교는 1640년에 설립되었다. 몬트리올 최초의 학교는 1653년에 설립되었다.

- 18세기 캐나다의 시골 소교구 교회에는 읽고, 쓰고, 셈하는 것 외에도 교리 문답 강의 그리고 여자 아이들에게 살림하는 법을 가르쳤던 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존재했던 일시적인 조건들로 인해 교육은 기초적인 것이었으며 주로 성직자들이 교육을 담당했다.

2) 영국 정복에서 “조용한 혁명” 까지

- 1763년 파리조약이 맺어진 후 영국인들은 건물들을 징용했고 프랑스와의 모든 소통을 금지 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초등교육

기관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더욱이 프랑스의 옛 식민지에는 인쇄소마저 없어지게 되었다. 단지 도시에만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사립학교들이 있었다.

-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시골 주민들은 밭일을 위해 엄청난 수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에는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정부는 공립학교를 열 것을 제안했지만 학교들은 영국 학교들일 뿐이어서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들은 이에 대항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문맹률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이 나타났다.

- 사립 교육체제는 특권층의 아이들에게만 관련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사회적 계층 간에 분리된 격차를 더욱 심화 시킬 뿐이었다. 1829년에 퀘벡 정부는 지주들에 의해 선출되고 세금을 통해 부분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교육위원회를 창립했다. 또한 퀘벡 정부는 학교 건립과 교사들의 급여와 등록금을 책임지고 있었으나 교사 양성이나 수준이 떨어지는 평신도들의 교육을 위한 그 어떤 조직도 배려하지는 않았다.

- 프랑스에서 창궐했던 반교권주의가 극성을 부렸으나 교회는 평신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들을 간행하고 수많은 사범학교들을 세웠다.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의 중등교육이 병행 되었다. 즉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졸업 후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 서민 계층의 아이들을 모집하는 공립교육이 있었고, 중류 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공업 콜레주들과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엘리트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통적인 콜레주들을 포함한 가톨릭 재단의 사립교육이 있었다.

- 장학관단의 설립과 1850년에 공립 교육 심의회의 창설과 함께 공립 교육체계는 발전되고 향상되었다. 그리고 교파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종교에 의한 분리원칙을 세웠다. 가톨릭 위원회는 점차 강력해졌고 체계적인 교수법과 교재를 강요했다. 대다수의 프랑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수가 막대해졌으며 가톨릭 위원회는 공립교육 체계에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가져오게 된다. 1867년에 영국의 북아메리카 법령은 캐나다 주에서 교육 검열을 담당하게 될 연방을 만들게 된다.

- 1960년대까지 이어져온 사회 계층의 불평등과 성 차별로 인해 퀘벡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학력이 점차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42년에야 비로소 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29년에는 초등 교육 기간을 3년 더 늘리게 되었는데, 초등교육 보충 기간으로서 1950년에는 중등교육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3) 퀘벡 교육체계의 개혁

- 퀘벡 교육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1963년에 알퐁스 마리 파랑(Alphonse-Marie Parent) 주교가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교육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한다. 르자쥬(Lesage) 자유당 정부가 권좌에 오르면서 11학년까지 무상교육을 공포하였고, 그 당시까지 투표권이 지주들에게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모든 학부모들에게도 부여할 것을 공포하였다.

- 파랑 보고서(Rapport Parent)로 인해 교육부가 생기고 초·중등 교육의

구조가 개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 작은 학교들을 통합제 학교로 재편성하게 되었다.

-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교육 기관으로 콜레주를 만들어 누구나 평등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8년과 1970년 사이에 수많은 전통 콜레주들과 사범학교들이 무료 교육기관인 세젱(Cégep)으로 바뀌었다.

- 이처럼 불과 몇 년에 걸쳐 퀘벡의 교육체계는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바꿈 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타 서양 국가들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던 교육의 낙후성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교육 예산을 늘림으로써 생긴 행정기관의 중압감, 통합제 중등학교의 과대한 규모, 학력 저하, 프랑스어 수준 미달, 전반적인 지식 부족, 어른들의 문맹률, 세젱의 일반 계열과 직업 계열 간의 연결 통로 부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수준 차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이러한 문제들은 1997년에 예고된 새로운 교육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교육에 관한 삼부회가 열리면서 논의되었다. 이렇게 해서 156개의 종교교육 위원회가 72개의 언어교육위원회로 재편성 되었으며 학부모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학교기관 심의회를 설립했고,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의 복지 서비스를 개선했다. 그밖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주로 국어와 수학 교과과정을 쇄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격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연구에 있어서는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점차 산업체와 협약을 늘려갔다. 2000년에 지방 정부에 의해 조직된 청소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품고 있는 기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했다.

3. 퀘벡 교육의 특성

- 캐나다 헌법이 1867년에 제정됨에 따라 교육은 각 주가 자체적으로 관할하는 영역이 되었지만 종교학교들은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할 외로 두는 몇몇 학교들도 있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교육 서비스는 연방의 권한에 속해 있었다. 1867년과 1982년에 제정된 헌법과 특히 권리와 자유 헌장은 교육 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20여 개의 법이 교육부의 책임 하에 정착이 되었는데, 그 법들 가운데는 특히 공교육에 대한 법과 사립 교육에 대한 법 그리고 프랑스어 헌장이 포함되어 있다.

- 퀘벡의 학교 체계는 200여 년 전부터 두 가지 근본적인 특성, 즉 종교적 이원성과 언어적 이원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영국 정복 이후까지도 언어와 종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가톨릭 종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만이 프랑스어의 영속성을 보장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권력은 영어권 공립학교를 일찍이 세워 놓았던,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손아귀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한편 교육이 의무화가 되고 무상 교육이 되기까지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가톨릭교 신자들은 교회라는 굴레 아래 1940년대를 기다려야 했다. 비로소 1948년에 프랑스어가 정식으로 국회에서 공식 언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 공교육 체계가 영어 사용자들에 의해 빠른 속도로 발전됨으로써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던 공교육 체계 외에 퀘벡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가톨릭

성직자들에 의해 사립교육망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교육개혁 이후로 사립 교육은 소수가 되었다. 1968년에 사립교육에 대한 첫 번째 법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금의 비율에 따라 세 부류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교육기관들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하고 우수한 교직원을 선발해야 하며 학생들을 공식적인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법은 1992년에 제정된 사립교육에 대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사립교육기관은 교육부가 발급한 설립 인가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설립을 위해 매우 강압적인 행태를 보이는 집단들도 생겨났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경제와 지적 관련 영역에서 영어권 사람들의 지배에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은, 이민자들이 자녀들을 영어권 학교로 보내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0년대 말경 프랑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함으로써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언어적 이원성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고 프랑스어권 퀘벡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을 가결하였는데, 그 가운데 프랑스어 헌장은 프랑스어를 교육 언어로 받아들이게 했다.

4. 퀘벡 교육체계

1) 초·중등학교 및 성인교육센터

- 초등학교는 대다수 만 다섯 살부터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교육기관이다. 한 학기는 적어도 180일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취학기간은 1년 내지 2년 간의 취학이전 교육과 6년간의 초등교육으로 이루어지며 13세까지 다닐 수

가 있다.

- 중등학교는 졸업 후 중등교육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5년간의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학위의 취득 여부는 최종 졸업시험 50%와 평상시 학교 성적 50%로 결정된다.

- 그밖에 일반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성인교육 센터와 노동시장에 내 보내게 될 학생들을 교육하여 직업교육학위를 수여하게 되는 직업교육 센터들이 있다. 정규 과정 이후 학생들은 이어서 직업교육 이수 증명서로 비준된 보충 1년을 더 다닐 수 있다.

2) 세젯(CEGEP)

- 중등교육 이후 2년~3년의 과정으로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세젯 교육은 고등교육의 첫 단계로서 퀘벡의 교육체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과정이다. 일반 세젯 정규과정은 2년으로서 8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인문과학, 자연과학, 음악, 무용, 조형예술, 예술과 문학, 과학 및 문학과 예술, 역사와 문화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편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세젯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은 3년으로서 5개영역으로 나뉘어져 11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영역으로는 생체 기술, 물리 기술, 인문 기술, 행정 기술, 예술 기술이 있다. 퀘벡 주 전역에 걸쳐 48개의 공립 세젯이 있으며 사립 세젯은 61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25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지원

을 받고 있는 25개 중 2개는 국제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세젍이라는 교육기관의 정규 과정을 이수한 후 대학에 들어갈 때 필요한 세젍 교육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이 교육기관이 담당하고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기술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학생들은 세젍 교육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은 콜레쥬, 연구소 또는 예술학교 등으로 분류된다.

3) 대학교

- 퀘벡에서 대학교는 프랑스어권 대학과 영어권 대학으로 나뉜다.
 - 프랑스어권 대학 : 라발대학교, 몬트리올대학교, 퀘벡대학교, 쉘부룩대학교, 썩장의 왕립 군사 콜레쥬
 - 영어권 대학 : 매길대학교, 콩코르디아대학교, 비숍대학교
- 몬트리올대학교에는 두 개의 전문 부속학교인 고등경영학교(École des hautes études commerciales)와 이공계 학교(École polytechnique)가 있다. 1980년대에는 전반적인 연구영역에 있어 꾸준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반면에 1990년대에는 막대한 예산 지원 삭감으로 인해 대학의 교원 자리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따라서 퀘벡의 학문적 성과에 크게 지체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는 교육부와 연구 과학 기술부가 고등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1997년에 퀘벡의 학술적 출판물은 캐나다 전체 출판물의 25.4%를 차지할 만큼 커다란 학문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이러한 출판물들 가운데 70% 이상이 대학에서 나왔으며 약 15.5%는 병

원에서 나온 것인데, 전체 출판물의 3분의 2가 몬트리올에 집중되었다. 연방과 각 주의 여러 단체에서 학문적 연구영역에 투자하려는 의지의 발로를 통해 미래의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퀘벡은 학문적 연구영역에 있어 이미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4) 교육행정

- 교육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교장과 기관 심의회는 학교와 교육센터의 경영을 맡는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교육부가 기준을 정하고 출판사는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재는 교육부에 의해 평가를 받고 승인을 거쳐 교육부의 검인정 교과서 목록으로 출판된다. 교육부 장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차관의 도움을 받게 되며 각자의 사무실과 보좌관 그리고 비서가 딸려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센터와 몬트리올의 교육심의회를 운영하는 교육위원회가 있다.

- 세젯 경영진은 행정심의회와 행정심의회가 임명한 교장으로 구성된다. 퀘벡대학교는 공적인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경영진은 퀘벡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다른 대학들은 사학법에 의해 탄생되었고, 그 경영은 대학심의회, 사무총장 그리고 여러 위원회가 함께 맡고 있다.

- 교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발급한 교육허가증 소지자라야 한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은 대학교에서 관할하며 그 과정은 4년이다.

III

방문지별 주요 보고내용

1.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 ▷ 목적 : 몬트리올 한인회 및 교육관련 교류 등에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외교부 직원과 면담
- ▷ 결과 : 몬트리올 한인사회의 개략적인 상황파악 및 몬트리올시 안의 기관별 접촉을 위한 정보 취득
-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ca-montreal-ko/index.do>



▷ 몬트리올 총영사관 방문에 앞선 기념사진 촬영



▶ 몬트리올 총영사관 내부에서 외교부 직원 미팅 전 대기상황



▶ 외교부 직원과 미팅 중인 상황

2. 피어슨 교육청

▷ 목적 : 박상진 의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몬트리올에 위치한 총 4개의 교육청(불어교육청 2개, 영어교육청 2개) 중 하나인 피어슨 영어교육청을 방문하여 과천시와의 교육관련 교류 제안

▷ 결과 : 2 차례의 방문 끝에 2019년 2월 ~ 3월 중 과천을 방문하여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 교육 설명회, 과천시와의 교육교류를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

▷ 홈페이지 : <https://boardsite.lbpsb.qc.ca/>



▷ 피어슨 교육청 전경



▶ 피어슨 교육청 담당자와 회의 전 과천시의회 소개책자 배부



▶ 피어슨 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김현석, 박상진 시의원



▶ 피어슨 교육청 담당자의 명함
(2019년 한국내방 예정)

3. 피어슨 전기기술학교

▷ 목적 : 퀘벡 주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전문 직업교육 기관인 피어슨 전기기술 학교를 방문하여 캐나다 현지 취업시장 현황 파악

▷ 결과 : 캐나다에는 인터넷 설치기술자와 전기기술자의 숫자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우리나라의 산학연계 보다 캐나다의 경우 기업체가 해당 기업체가 사용하는 장비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학생은 이를 실습장비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파악함.

▷ 홈페이지 : <http://www.lbpce.ca/pec>



▷ 피어슨 전기기술 학교 시찰 사진 1



▶ 피어슨 전기기술 학교 시찰 사진 2



▶ 피어슨 전기기술 학교 시찰 사진 3



▶ 피어슨 전기기술 학교 시찰 사진 4



▶ 피어슨 전기기술 학교 시찰 사진 5



▶ 피어슨 전기기술 학교 시찰 사진 6



▶ 피어슨 전기기술 학교 시찰 사진 7



▶ 피어슨 전기기술 학교 시찰 사진 8

4. ETS공업대학

- ▷ 목적 : 퀘벡 주의 엔지니어 4명 중 1명을 교육할 정도로 규모있는 ETS 공대를 방문하여 캐나다 4차산업 발전의 근간이 무엇인지 현황 파악
- ▷ 결과 :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협동조합을 통한 학생고용 등 다양한 편의제공 및 커리큘럼 확인
- ▷ 홈페이지 : <http://www.etsmtl.ca/en/>



▷ ETS공대 메인 파빌리온 전경



▷ ETS공대 메인 파빌리온 입구



▶ ETS공대 내부 학생복지를 위한
협동조합 서점 앞에서



▶ ETS공대 내부 교육 현장 1



▶ ETS공대 내부 교육 현장 2



▶ ETS공대 내부 교육 현장 3



▶ ETS공대 내부 모습 1



▶ ETS공대 내부 모습 2

5.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 목적 :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로 꼽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할디만디 카운티의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여 태양광 발전소가 인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현장을 확인

▷ 결과 : 캐나다의 인구밀도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이긴 하나,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는 인기척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음. 도심과 지척이며, 이용객이 많은 서울대공원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하였음



▷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내부를 촬영중인 김현석, 박상진 시의원 1



▶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내부를 촬영중인 김현석, 박상진 시의원 2



▶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현장사진 1



▶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현장사진 2



▶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현장사진 3



▶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현장사진 4



▶ 할디만디 태양광 발전소 현장사진 5

6.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

- ▷ 목적 : 몬트리올의 평균적인 공립고등학교인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를 방문, 실제 캐나다의 공교육 현장을 파악하고 옴
- ▷ 결과 : 공립고등학교 내에 조리실 및 조리교육 실시, 지역 주민들에게 후원을 받으며 운영하는 로봇동아리, 간단한 아침식사 제공, 유학생들을 위한 수업 중 튜터교사 운영 등 색다른 교육 시스템 확인
- ▷ 홈페이지 : <http://lakesideacademy.lbpsb.qc.ca/>



▷ 고등학교 입구에서



▷ 교무실 안에서



▶ 미술실 안에서



▶ 조리실 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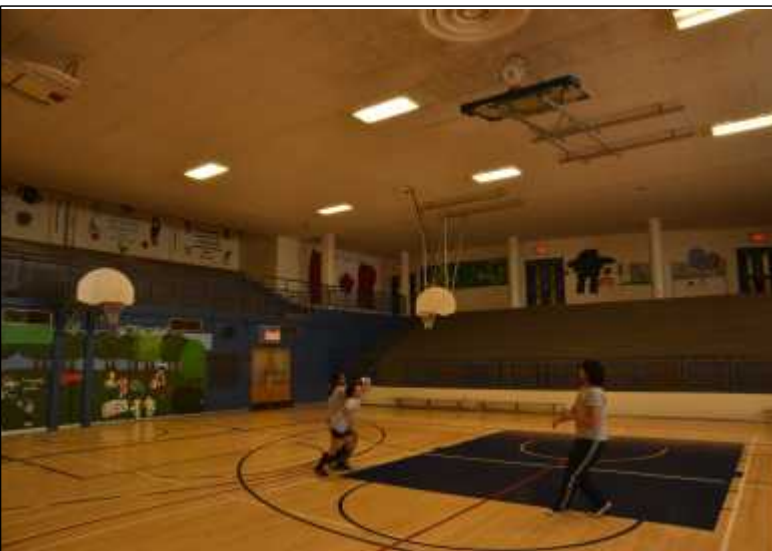
▶ 체육관 안에서



▶ 학교 직원에게 안내받고 있는 모습



▶ 로봇동아리 방 안에서



▶ 동양인과 흑인, 인디언 학생들이 사이좋게 운동하는 모습

7. 몬트리올 한인성당

▷ 목적 : 캐나다의 제1종교는 가톨릭인 만큼 그 사회적 위상은 지대함. 향후 과천의 학생들이 캐나다로 어학연수, 유학 등 교육을 위해 몬트리올에 기거할 시 선택지 중 하나로 한인 및 현지인 홈스테이 연결을 위한 사전 네트워크 구축

▷ 결과 : 캐나다 한인성당 이봉춘 보로메오 신부님을 비롯한 수녀님, 한인 성도들과의 오찬 및 미팅을 통해 교두보 확보

▷ 홈페이지 : <http://mhisd.com/>



▷ 몬트리올 한인성당 이봉춘 보로메오 신부님 및 수녀님과 오찬



▷ 사제관 내 이봉춘 보로메오 신부님 방 앞에서 환담중인 모습



▶ 성당 한인회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 몬트리올 한인성당 안에서 수녀님과 교류하는 사진

8. CDI 칼리지

▷ 목적 : 40여년 동안 캐나다 전역 20곳의 캠퍼스를 통해 미술 및 디자인, 치과, 법률, 경영 분야의 종사자를 배출해 온 CDI 칼리지를 방문하여 캐나다 내 취업현황 및 한국인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파악

▷ 결과 : 포인트클레어 캠퍼스 책임자와 미팅하여 한국인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으나, 취업시장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보안 전문가, 프로그래머, 인터넷 솔루션 개발, 3D모델링, 웹디자인 등 컴퓨터 관련으로 취업률이 매우 양호하며 해당 분야가 캐나다 취업시장에서도 각광받는 업종으로 한국 학생들이 캐나다로 진출할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음

▷ 홈페이지 : <http://www.cdicollege.ca/>



▷ CDI 칼리지 교무실 앞에서 포인트클레어 캠퍼스 책임자와 기념 사진



▷ CDI 칼리지 책임자와 미팅중인 모습



▷ CDI 칼리지 내 배너 앞에서

IV

정책제언

- 퀘벡의 교육은 과거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쳐졌으나 50년이 걸리지 않아 가히 교육혁명이라 할 만큼 그동안 지체되었던 교육 발전을 만회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듯 단기간에 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던 것은 “조용한 혁명(Révolution tranquille)”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교육체계를 이끌어 온 여러 지도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 프랑스와는 달리 캐나다 퀘벡은 교육에 있어서 엘리트주의 교육을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매우 폭넓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퀘벡은 독특한 교육체계를 구축했으며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점으로 꼽히는 높은 취학률과 학위 취득률은 눈여겨 볼만하다.
- 교육개혁 내용으로 포함되었던 1997년에 발표된 야심찬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캐나다 퀘벡은 이제 더 이상 상대국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퀘벡이 거두어 왔던 성공적인 교육체계 운영 성과는 다른 나라에 적절한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과천의 경우 전문적인 불어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불문과가 있으며, 과천시민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볼 때에 몬트리올과의 교육적 교류의 효용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 단기적으로는 현재 과천시가 시행중인 방학 중 해외 단기 어학연수지로 몬트리올을 추가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캐나다의 엄선된 교사를 과천시에 파견해 과천의 교육적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과천의 학생들을 캐나다로 유학시켜 맥길대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에 과천청년들이 진출하거나 심각한 취업난 해소 차원에서 과천시-몬트리올시 간의 취업교류 방안 등 실로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이 가능하다.

· 그러나 이러한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이러한 교류가 김현석, 박상진 의원 두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지만, 이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천시의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과천시의 교육과 과천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과천시와 몬트리올시 간의 교류에 과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몬트리올과의 교육적 교류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민의 호응이 없는 정책은 그 효용을 잃을 수밖에 없다. 우리 두 사람이 몬트리올에서 보낸 2주간의 시간은 그동안 과천시민들이 보여 준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몬트리올과의 교육적 교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다.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김현석, 박상진 의원은 포인트클레어 교육청 관계자의 방한을 이끌어 냈으며,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과천시민들을 위한 몬트리올 교육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 연구보고서를 끝까지 보신 시민 여러분 가운데 몬트리올 교육간담회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다면 과천시의회에 공개된 김현석, 박상진 시의

원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서덕렬. (2012). 캐나다 퀘벡의 교육혁명. 캐나다학 연구, 18(1·2), 63-82.
- 서덕렬. (2011). 퀘벡의 교육체계.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7, 363-387.
- 문영석. (2010). 캐나다 교육산업 사례연구에서 본 한국 교육산업에 대한 함의(畵意). 캐나다학 연구, 16(1·2), 153-173.
- [4차산업 교육혁명 시작중 울렸다] 미래와 미래가 만날 때. 부산일보. 2018년 9월 18일. 26면